

부마민주항쟁 26주년 정신계승대회 “증언대회” 박정희 통치기의 국가폭력 사례

- 주 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료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 일 시 : 2005년 10월 16일(일) 14~16시
 - 장 소 : 민주항쟁기념관 큰방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03.

노동운동 탄압 피해자

동일방직 노동자 탄압 사건

추송례

박정희 통치기의 노동운동 탄압

박정희 통치기의 노동운동 탄압



1. 노동과 삶

(노동자로 살아온 추송례의 투쟁의 역사)

저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올라와 노동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1974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농토가 없는 섬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더 뼈저리게 가난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인천에 와서 처음에는 먹고 잘 곳이 없어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는 이름도 없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단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고마워하라며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12시간 ~14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돈도 안 받고 밥 먹여 가며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불만이냐'고 호통을 쳤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와 마땅히 갈 곳은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입니다. 밥이라고 주는 밥은 말이 밥이지 개밥만도 못하고 공장 한쪽 구석에 잠 잘 곳이라고 마련해준 잠자리는 거지움막 보다 못했어.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일하다가 도시 사정이 파악되자 그곳에서 도망쳐 어렵게 대성목재라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밤낮 12시간씩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고 작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첫 월급이 만 원도 안됐던 것 같은데 그걸 받아두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월급을 받아두고 금방 부자가 된 것처럼 어서 돈을 모아 아버지 배에 모터를 달아드려야지, 2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학교 다니는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줘야지... 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게 힘든 노동을 참고 견디는 힘이 되었던지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떤 변화가 없이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몸이 힘든 것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희망 없는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다락방 하나에 사오 명씩 숨이 막힐 듯 겹쳐서 잠을 자고, 그나마 방 한 칸도 주야 교대로 나눠 써야만 밥이라고 굶지 않고 살수 있으니 잠 잘 곳과 밥만 먹여주던 이름 없는 공장다들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향만 떠나오면 좀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듯 꿈에 부풀었던 환상이 깨어지고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겠다는 절망감에 빠져 '이렇게 평생 노동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 동일방직

그러다 당시 인천에서 알아주는 회사였던 '동일방직'에 들어갔습니다. 동일방직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노조 지부장을 탄생시킨 곳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운영됐던 곳입니다. 12시간 넘게 일하다 동일방직에 들어가서 8시간을 일하게 되니 일한 것 같지도 않았습다. 그런데도 현대식 건물에 살기 편한 기숙사까지 제공해주고 식사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나 처음 접한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어디 있을까 싶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보탬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6-7개월쯤 일했을 때 현장 안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잔디밭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영문도 모르고 부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임금 10%를 올려달라는 데모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성목재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주고 기숙사에 밥까지 주는데 월급 10%를 더 올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어서 동료들 불들과 불었더니. 대답하기를 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상을 통해 임금과 보너스를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시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고 기숙사, 탈의실, 목욕탕, 예배실 등 복지 혜택들을 얻어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내 머리 속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노동자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회사와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밥만 먹여주는 것으로도 끝없는 노동을 강요당했던 이름 없는 공장과 대성목재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노동조합만이 노동자들의 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알고 나니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는 노동자의 삶에도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하나 되어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만 있다면 바뀌놓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뒤 나는 스스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근로기준법을 배우고 노동조합의 중요성 등을 배우고 익혀 열성 조합원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처음 대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벅차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노동조합을 알고 열성 조합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봉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3. 기숙사에서 쫓겨나다.

열성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회사 책임자들이 감압적인 태도로 회사를 나가든지 조합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조합으로 뚫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떤 위협에도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조합 활동을 계속하자 강제로 기숙사에서 쫓아냈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기숙사에서 쫓겨났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순간 조합 활동을 뭐 하러 해서 이 고생일까 싶어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기숙사에서 강제로 나가라는 것은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하여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라는 일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렇게 10여 일 이상, 지루한 싸움 끝에 기숙사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회사를 이겨냈다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 뿐이었고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회사를 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료들은 나를 회사를 이겨낸 강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조합 간부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4. 나체시위

1976년에 들어서면서 노동조합 파괴 책동은 국가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고 본격화 되었습니다. 2월 대의원 선출을 기점으로 해서 회사 측이 농간을 부려 단결된 조합을 분열시켰습니다. 선출된 대의원 47명을 대상으로 협박, 공갈 회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공작을 일삼아 결국 노조 지지 세력과 회사 측 지지 세력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 대의원 들끼리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게 회사와 정부가 노리던 바였던지 조합원들 간의 싸움에도 경찰이 곧바로 투입되는 등 노조 파괴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양심을 저버리지 못한 몇몇 대의원은 회사 측이 돈을 주고 유혹하고 말을 듣지 않으며 퇴사시키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회사 측 말을 따랐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7월까지 조합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동부경찰서에서 지부장과 총무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걸 계기로 전조합원들이 항의 농성에 들어가 조합 간부들을 석방시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1. 조합간부들을 석방하라. 2. 노조활동을 탄압하지 말라. 3. 조합 활동을 막는 노무과장은 물러나라.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 며칠째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저항이 계속되자 완전무장한 전투경찰 수백 명이 외위 싸고 무자비하게 잡아끌어 닭장차에 실었습니다. 농성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우리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면 옷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작업복을 벗어던져 반나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나체라고 사정을 봐주지도 않았고, 수백 명이 넘는 완전무장한 전투경찰은 포위망을 좁혀 난도질을 하다시피 잡아끌었습니다. 그때 50여 명이 다치고 80여 명이 반나체 상태로 경찰서에 수감되고,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차 뒤를 쫓아 경찰서 까지 쫓아갔습니다. 부상자들 중에는 닳새가 지나도록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날의 투쟁을 언론매체들은 “이색 나체 쇼”라고 보도 경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노동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정부 측의 규제로 정작 보도된 것은 동아일보(이태호 기자 씀)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체시위 이후 동일방직 앞에는 경찰차가 상주하게 되었고 조합 간부들과 열성 조합원들은 철저히 감시당해야 했습니다.

5.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섬유노조 본부로 끌려가 조합원들 석방과 조합 정상화투쟁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으로 연행된 조합 간부들과 시위도중 잡혀간 조합원 전원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섬유노조 위원장은 동일방직 노조 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동부경찰 서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화답까지 주었습니다. 우리는 상급지부인 섬유노조 협조를 구하기를 잘했다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 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유노조 본부도 내분이 일어나 본부지부장을 밀어내고 부산지부장이었던 김영태가 본조 위원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방직 문제를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었고, 그걸 빌미 삼아 김영태 측은 지부장을 불신임하고 자신이 신임 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신임 위원장이 된 김영태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기보다 정부와 손잡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어용노조 노동귀족으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합은 정부정책에 앞장서는 본부노조의 지휘공작 아래 처참하게 파괴되고 짓밟혔습니다.



6. 동물사건

섬유노조 김영태 위원장 행동대원들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으로 1977년 2월 지부장 선거는 투표도 못해보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부노조 행동대원들과 회사측이 공모를 하여 투표장에 들어서는 여공들을 잡아다가 입과 가슴에 다치는 대로 똥을 집어넣고 “똥이나 쳐 먹으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도망치고 잡히고 빠져나가보려고 발버둥치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돈으로 동원된 회사 앞잡이들까지...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어용화 시키려는 세력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수년간 투쟁으로 일궈낸 노동권을 빼앗겨 뒤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쟁방법을 찾다가 1977년 3월 10일 노동절 기념 행사장에 대통령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념사를 낭독하는 중간쯤에 일어나 동일방직 문제해결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외칠 것을 조합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다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신 낭독하는 가운데 우리 조합원 100명이 일어나 “동일 방직 문제 해결하라” 하고 소리치며 프랑카드를 펼쳐들었습니다.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아무리 가난해도 똥은 먹고 못살겠다.” 100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경찰들에 의해 끌려 나갈 때까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니 잡혀온 우리 등지들 중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코피가 터지고 팔이 빠지고... 처참한 물결이었습니다. 그렇게 100명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미리 짜놓기라도 했던 것처럼 “내가 주동자다.” 하고 우기는 바람에 100명이나 되는 여공들을 다 구속시킬 수는 없었던지 며칠동안 조사만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7. 명동성당 단식투쟁...

계속된 투쟁과 저항으로 3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반강제적인 퇴사를 당했고 남은 조합원들도 더 이상 탄압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직장 상사들과 회사 측 손발 노릇이나 하는 남자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공장 밖으로 나가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목욕탕 입구까지 심지어는 공중화장실까지 따라다니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가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통에 노동조합을 지키려는 일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꼴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아무리 의식이 있다는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반 강제적으로 사표 쓰고 결혼들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조합원이 한 사람도 남아 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간부들은 싸우다 죽을 결심으로 명동성당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죽기를 결심한 간부들의 투쟁소식을 듣고 일을 마친 조합원들이 하루에 백 명 넘게 명동성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지 못한 조합원들까지 명동성당 단식 투쟁에 합류하여 끝까지 저항했던 124명이 강제해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종교단체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부에서는 노동자를 감싸주는 종교단체까지 불순세력으로 간주하여 탄압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단체나 시민연대 지지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기를 결심한 단식투쟁까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124명의 해고 사태만 빚고 말았습니다. 해고된 대다수가 기숙생들이어서 해고 이후 문제는 당장 갈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단식으로 지친 동지들은 눈물조차 흘리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하고 신음소리 같은 탄식만 쏟아냈습니다.



8. 산업선교

해고 통보를 받고 보니 일자리뿐만 아니라 당장 잘 곳도 입을 옷도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열흘 이상 단식투쟁으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거지꼴이었는데 씻을 곳도 입을 옷도 없다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까 정말 옷이나 갈아입고 씻을 곳만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닥칠 짐자리 걱정보다 더 절실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철문을 붙들고 밤연자실해 있는 동지들을 이끌어 산업선교회로 향했습니다. 믿는 곳은 오로지 조화순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목사님은 함께 살길을 찾아보자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잠시나마 목사님의 위로로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의자들을 치우고 그 자리를 124명 해고자들의 짐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담요 한 장으로 견뎌야 했지만 우린 거처가 마련된 것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업선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복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공권력 탄압은 더욱 악랄해졌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동일방직 여공이라는 호칭 대신 '빨갱이 년'들이란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산업선교는 빨갱이 집단이다. 그 우두머리는 조화순이며 그 쫓개들은 동일방직 여공들이다. 산업선교가 회사에 침투하면 도산한다."라는 내용으로 책까지 만들어 경인지역 모든 산업체에 무료로 배부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부공권력이 개입되어 죄 없는 여공들에게 조차 빨갱이 불순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는가?"라는 책에는 산업선교 지지자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공장 내에서 그들은 친절하며 모든 일에 순순수법하고 다른 동료들을 잘 돕는다." 그들 설명대로라면 누구나 사귀고 싶은 친구의 조건이 아닌가요? 참으로 이해조차 하기 힘든 세월을 살아왔었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당치도 않는 모욕과 수모를 받으면서도 목사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편에 서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고를 시켜도 복직투쟁으로 계속되자 정부 공권력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우리 해고자들도 당하고 짓밟히는 대로 더 강해지고 투쟁의 강도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신민당 당사로 찾아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우리들을 일터로 돌려보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의도 기독교행사장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하느님의 정의는 악자의 호소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국가 권력은 풀러나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혀가고 풀려나기를 반복하며 구속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9. 현대판 노예문서 블랙리스트

복직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나 투쟁만 계속하고 있을 수도 없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동지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투쟁했던 정신만은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일자리를 찾아 떠났는데 며칠 되지 않아 떠났던 동지들이 되돌아 왔습니다. 사연인즉 취업하는 대로 다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섬유노조 김영태 이름으로 전국 모든 공장에 배포한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동일방직 해고자라는 사실까지 상세하게 적힌 문서로 절대 취업시키지 말라는 충고까지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방직 해고자들은 즉시 신분이 확인되는 대로 해고되었던 것입니다. 동지들은 울부짖으며 공장도 다닐 수 없는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앞으로 우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일방직 해고자들은 신분을 속여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외엔 어디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조위원장이란 사람이 노동자를 때려잡는 일에 앞장섰으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로막았고 나는 장애를 물리치고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투쟁이었다면, 아직도 내 투쟁은 끝나지 않을 영원한 투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2일 추 송례.

10. 낙선운동

민주노조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섬유노조가 김영태가 본부지부장이 되면서부터 노조 파괴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해고자들은 김영태를 노동자의 적으로 간주했어요. 그런 김영태가 박 정권에 충성한 상급으로 공천을 받았는지 부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출마를 한 것입니다. 나는 해고 동지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내려와 김영태 낙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김영태 같은 인물이 국민의 대표자가 된다면 노동자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처럼 국민들을 울릴 것이 분명하므로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호소문을 만들어 뿌렸습니다. 인천에서 형사들을 따돌리고 어렵게 부산에 모인 동지들이 2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구역을 정하고 유인물을 나눠가지고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고 다음날 저를 포함해서 부산에 남아있던 세 사람도 부산 남부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저는 김영태 낙선운동을 주도한 주동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너무나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취조실에 끌려가 없는 사실까지 불라고 강요당하는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거의 20일간을 그렇게 견디다 감옥으로 송치되니 이게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온몸이 쭈시고 아픈 것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방직 투쟁 과정에서 10차례 이상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부산 경찰들처럼 그렇게 무지막지 사람을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노동문제 전담 형사가 내려와 조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때 저는 그 형사 다리를 붙잡고 우리를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부산에서 개죽음을 당할 것만 같아 죽어도 서울로 가서 죽어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가 1978년 5월이었는데, 그때까지 부산 경찰들은 노동문제나 학생사건과 같은 큰 사건들이 없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특혜를 입은 지역이어서인지 경찰들은 박정희 독재 권력의 신봉자들 같았습니다. 대놓고 “너희 같은 년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 버려야 한다” 고 위협하고 “바다 속에 처 넣어 버린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정도였으니, 얼마나 공포에 떨어야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날이 새면 취조가 시작되는 것이 무서워 영원히 날이 새지 않기를 기도했었습니다.

11. 교도소가 천국 같았습니다.

고문 없는 감방 생활은 천국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는 노동과 투쟁의 나날을 보냈던지라 황금 같은 청춘 시절은 마음 편히 지내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해고된 후에는 24시간을 감 시 속에서 살면서 투쟁이 없어도 늘 긴장하고 살았기때문에 마음편한 기억이 없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날들을 생각해보면 교도소 감방 생활이었다고 말합니다. 첫날 긴장감이 지나고 나자 ‘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안도감과 해고된 후 한번도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보고 싶은 책들도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 뽕밤이지만 굴주릴 염려도 없고 잠자리 걱정도 없었으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1979년 3월에 출소하여 인천으로 갔으나 우리들 복직투쟁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복직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들어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현장운동을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무 의미도 없는 복직운동에 매달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노동운동의 씨앗이 될 결심으로 현장생활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취업하기 쉬운 부산으로 내려와 범일동에 자리를 잡고 삼화고무에 취업을 했습니다.

12. 삼화고무

1979년 5월에 삼화고무 운동화 만드는 부서에 취업을 하여 더 큰 변화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동일방직노조 운동 경험을 살려 삼화고무 야학반을 만들고, 봉사 모임 등으로 위장한 의식화 준비 소그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급하게 변해야 할 부분은 억눌리고 확대당하면서도 안 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기계가 아닌 인간이 견딘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할 지경에서도 항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화고무에 들어가 “안 됩니다.” 하고 소리치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너무 과중한 노동으로 혹사당할 때는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내 권리를 박탈당할 때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을 몸소 모범을 보여서 말입니다. 그게 삼화고무에서 펼친 내 노동운동이었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새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동지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일 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된 노동은 그대로였지만 의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79년 거의 돌발 상황처럼 발생된 부마항쟁의 경험으로 노동자의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마항쟁 기간 내내 최대인파가 모인 삼일극장 앞과 보림극장 앞은 당시 국제상사, 삼화고무 같은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앞이었던 것입니다. 퇴근을 하면 자동으로 시위하는 시민들과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변화를 갈망하는 민중과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마항쟁을 시월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믿기 힘들었던 민중의 힘을 너나 할 것 없이 오랫동안 했고 저역시 견디기 힘든 전두환 통치 기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민중의 함성을 기다리는 혁명을 꿈꾸면서....

13. 30년간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17살에 도시노동자가 되어 지금까지 30년 세월을 사회변혁을 꿈꾸는 노동자로 살아오는 과정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년 장기독재가 무너지자 살인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힌 우리 같은 사람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광주민중학살이 일어나고 미문화원 화재사건이 터지고 그때마다 우린 일차적인 검거 대상으로 지목되어 지독한 고문과 조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미문화원 화재사건이 터지고 부산에서만 해도 50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과 저도 각자 다른 곳으로 잡혀가 3일 밤낮을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숨한 시련 속에서도 변화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대라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물을 축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샘을 파서 물을 시원한 물을 마시겠다는 마음으로 샘을 파내려가듯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소중한 자유가 어떤 희생을 치러냈는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